

# 가난한 지자체는 위험도 감수해야 하나

### 전남도·각 시군 교량 등 19곳 위험도 D·E등급 예산 없어 보수 못해 ... 국비 요청해도 하세월

재정자립도 최하 수준인 전남도와 각 시·군이 예산이 없어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이나 재가설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바라고 있으나 이미지도 여의치 않으면서 땀질 처방에 그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소극적인 대처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가난한' 지자체는 재난위험도 감수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전남도는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등급 재검증에 나설 예정이지만, 등급만 낮추고 예산이 없어 대책을 수립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안전등급 D등급 이상 시설은 모두 19곳으로 18곳은 교량, 1곳은 연립주택이다. 교량 18곳은 모두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으로, 전남도와 각 시·군은 예산이 없어 오는 2018년까지 재가설 등을 완료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계획 뿐으로 실제로는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상당기간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9.2%인 영광군은 불갑면 도갑교의 재가설을 위해 수년간 30억원을 정부부처에 요청했으나 끝내 무산되면서 내년 자체 재원으로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재가설에 15억원이 드는 영광읍의 공산교 역시 마찬가지다.

6.2%의 함평군도 대동면 금운교와 손불면 유록 2교의 정밀진단 용역비 4000만원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절뚝대고 있다. 지난해 재정자립도 17.9%로 비교적 높은 화순군은 북면 외천교와 춘양면 금곡교의 재가설에 나섰으나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보수로 방침을 바꿨다. 각각 5000만원과 7000만원의 보수비도 없어 내년에 예산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재난 위험이 있는 담양군 고서면 주산교 등 교량 5곳의 예산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면서 일부 교량을 도로 확장 사업에 포함시켜 다시 놓는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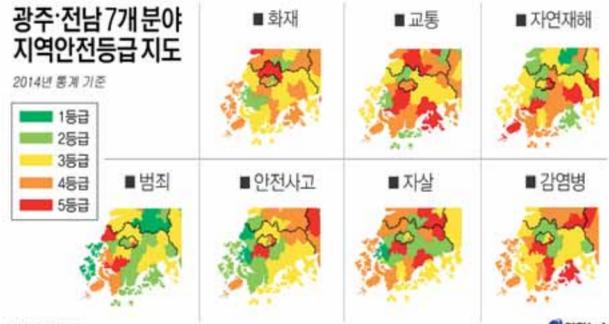
이들 교량은 1970~80년대 세마를사업으로 건설된 것이 대부분으로, 재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시·군의 입장이다. 전남도와 각 시·군은 이들 교량 전후로 안내판과 무거운 차량의 통과 저지 시설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들 교량의 경우 점속도로까지 손을 대야 해 수십억원의 비용이 든다"며 "인건비도 못줄 형편의 전남 시·군이 일시에 이 같은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1984년 건립된 무안군 해제면 연립주택은 지난 2010년 E등급 판정 이후 5년만인 올해 보상·철거·조성에 필요한 16억원을 간신히 마련해 32가구 중 31가구의 이주를 완료했다.



소화기 이렇게 사용하세요 안전점검의 날인 4일, 안전사고예방 캠페인이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북부소방서와 바르게살기 북구지회 등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가자들이 소방관들로부터 소화기 작동법을 배우고 있다.



광주·전남 7개 분야 지역안전등급지도 2014년 통계 기준

한편, 전남도는 재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준공 후 35년이 지난 도내 노후시설물 190개소에 대한 안전등급 재검증을 추진중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 죽일 정도로 빠른

### 신형철 칼럼



말하기보다 글쓰기가 더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말을 쉽게 해왔다는 뜻일 수 있다. 지금보다 훨씬 미성숙했던 시절, 나는 참 많은 말을 함부로 했던 것 같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며 직업을 택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 된 것이 다행스럽다고 여긴다. 내게 글을 쓴다는 것은 극도로 천천히 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잘못을 수정할 수 있으며 오해를 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말이 있는 세계에 글도 함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그래서 나는 육체적으로는 말하기가, 정신적으로는 글쓰기가 더 편하다.

그러나 글도 '자주' 혹은 '빨리' 쓰면 말하기에 점점 가까워진다. 4~5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종류의 짧은 글들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많이 썼다. 많이 써야 했기 때문에, 자주 또 빨리 썼다. 충분히 오래 생각할 수 없게 됐다. 내게 연재의 간격과 사유의 깊이는 비례 관계였다. 1주일마다 쓰는 글에는 딱 1주일 생각한 만큼의 깊이가 담기는 것이었다. 물론 그런 종류의 글이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글쓰기의 영역에서도 눈부신 단거리 주자는 있는 법이다. 자주 빨리 쓰는 분들 중에 내가 한 달을 생각해도 가닿을 수 없는 깊이의 글을 써내는 이들도 있다.

나는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내 글이 말에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했고 내 말이 글에 가까워지기를 소망해왔다. 그러나 세상의 흐름은 반대라고 있는 듯 보인다. 글을 '자주' '빨리' 쓸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고 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은 신문기자다. 그러나 종이신문만 내던 시절에 일간지 기자는 최소한 반나절은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서 기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이다. 데스크를 통과하면서는 지난한 재고와 수정의 시간을 거쳐야 했을 것이다. 즉 인쇄 시간 전까지는 최소한의 사유 시간을 아낄 수 없이

가져야 했으리라. 그러나 요즘은 너무 빠르다. 사건 발생 몇 십분 만에 기사가 '뜬다'.

속도 경쟁은 언론의 속명임을 모르지 않는다. 그 와중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신중해지려고) 노력하는 기자들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분들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빨라지려다 보니 경솔해진 기사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빠르기로는 그 기사를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링크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이들도 만만치가 않다. 헤드라인만 읽고 쓴 게 아닌가 싶은 정도의 피상적이고 과격함(피상적이라는 건 순간에 인터넷 공간에 무더기로 쌓인다. 그리고는 끝이다. 그리고 신중함 의견은 이제 아무도 없는 광장에 너무 늦게 도착한다.

모두가 자신만의 매체를 갖게 된 이 시대가 선사한 축복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내 눈에 더 잘 보이는 것은 국민 모두가 언론인이 되면서 발생하는 기 시작할 명백한 재앙들이다. 언론이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권력이라고 불리는 것이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은 세상에 뿌려져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문장만 큼 끈질기게 살아남는 것이 달리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말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믿는다. 그러나 SNS에 매일 새로운 기사(?)를 업데이트하는 많은 이들이 너무 쉽게 펜을 휘두른다. 거기에서는 진실의 복잡성에 대한 두려움과 존중이 없다. 나는 세상의 펜들에 난자당하는 사람을 여럿 보았다.

나는 우리 시대 새로운 매체 환경의 부정적 측면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언어를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난스럽게 근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받을 수는 없을까. 다음과 같은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다. '문학은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다. 아니, 단순한 것이 실은 복잡한 것임을 끈질기게 지켜보는 일이다. 진실은 단순한 것이냐는 말이 있지만, 진실은 복잡한 것이라는 말도 맞다.'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있고, 글과 말은 점점 쉬이 되고 있다. 빠른 속도로 깊게 생각하는 법을 나는 모른다. 이즈음의 나는, 어쩌면 이제 이 세계 자체가 문학에 적대적인 곳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비관적인 생각과 싸우고 있다. <평론가·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

##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 등원 논란

### 진보연대 "의정활동 보장" VS 도의회 "상황변화 없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재개를 놓고 전남도의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진보연대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4일 오전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의회와 시·군의회는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통합진보당 해산을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방

의회가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퇴직을 통보, 처리한 것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게 최근 사법부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중앙선거위가 퇴직통보를 함으로써 마치 의원직 신분이 박탈된 것처럼 왜곡했고, 지방의회는 이를 처리해 민주주의의 전당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오미화 전남도의원 등 광주·전남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광

역 3·기초 3)은 지난달 26일부터 의정활동 재개 및 등원을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중앙선거위의 퇴직 통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또 올해 초 시·도 선거위원회와 시·도의회 의장 등을 상대로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원 퇴직 처분 취소 소송을 광주지법(제1 행정부)에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남도의회 등은 중앙선거위 결정 이후 "어떠한 상황변화도 없다"며 옛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등원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복합리조트 경도에 조성을"

### 동서창조포럼 주장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8개 지역 시민사회 인사 100명으로 구성된 동서창조포럼은 4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북아 해양복합리조트를 여수 경도에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북아 해양복합리조트 조성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정부 계획의 하나였는데 정부가 약속을 무시했다"며 "인천, 부산 등과 여수를 함께 후보지로 끼워 넣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이 될 것인지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제52회 무역의 날 기념」

# 2015 KITA 호남권 해외 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국내업체 모집안내

## 중화권 수출의 첫시작, 중국 유통을 움직이는 빅바이어를 직접 만나!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제52회 무역의 날」을 기념하고 광주전남 소재 중소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화권 유통 빅바이어를 초청해서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합니다.

### 2015 KITA 호남권 해외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일시** : 2015. 12. 1(화) 09:30 ~ 18:00  
**장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주요 참가사** (※전체 리스트는 홈페이지 참조)

- Vanguard | 중국 유통 1위
- RT-Mart | 중국 유통 2위
- Suguo supermarket | 중국 유통 3위, 벵가드 계열사
- Beijing Huitong TianTian | 중국 1위 화장품 전문 전자상거래 기업
- VIPshop.Co., Ltd | 중국 B2C 5위, 월평균 반복구매율 1위
- Prothai | 태국 현지 한국식품 1위 소싱업체
- Hola | 중국 리빙용품 2위 기업
- ParkNshop | 홍콩 최대 슈퍼마켓체인
- Manning's | 홍콩 1위 Health&Beauty 드럭스토어 체인

**상 담 품 목** :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주방용품, 욕실용품, 패션악세서리, 텍스타일), 이머용품 등

**참가업체 모집** : ~ 11/17, 15:00까지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 <http://gj.kita.net> → 사업공지 → "2015 KITA 호남권 해외 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국내업체 모집 공고"에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팩스 접수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0**